

왕의 생애, 구름 같은 역사를 읽다

소설가 이우상씨의 조선왕릉 순례기와 불교 이야기

장묘(葬墓) 문화도 변화를 거듭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장문화가 대세를 이루던 시절을 거쳐 납골(納骨)과 산골(散骨), 매장(埋骨)의 형태로 다양화 되고 있다. 얼마 전 서거한 노무현 前 대통령의 경우 화장한 후 유골을 수습하여 사찰에 모신 채 49재를 지내고 집 근처에 매골을 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은 비석'을 세울 계획이다. 박정희 前 대통령의 묘소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있고 최규하 前 대통령의 묘소는 대전 국립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있다. 윤보선 前 대통령의 경우 충남 아산 음봉면 선영에 묘소가 있다. 이들 3명의 전직 대통령은 매장의 풍습을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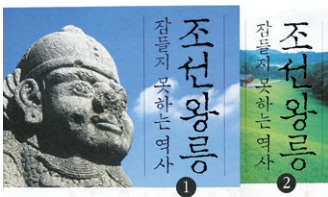
조선시대 왕들은 어땠을까? 두말할 것 없이 매장의 풍습을 국법으로 지켰고 능의 규모도 엄청났다. 국상이 나면 신하들은 상례와 능역공사를 위해 국정을 중단했다. 조선 개국 태조대왕부터 마지막 순종에 이르기까지 27대를 이은 제왕들의 능역은 지금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흩어져 있다. 조선왕조 500년을 가장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조선왕릉의 능이다. 조선 왕릉은 조선의 역사를 담은 책이다.

조선왕의 능은 그 왕의 재임을 그대로 닮아 있기도 하다. 왕의 업적과 권위, 세자를 알리거나 효순한 인물로 두었느냐, 후원 왕의 정치가 얼마나

평탄했느냐 등에 따라 능의 모양과 권위도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왕의 능만이 아니다. 왕 곁에 묻히지 못한 비와 계비 혹은 후궁들의 능역도 고단한 생애를 묻은 채 역사의 언저리에 다소곳이 자리하고 있다.

소설가 이우상씨와 사진작가 최진연씨는 조선왕릉 순례를 통해 조선과 오늘을 동시에 읽고 있다. 왕릉에서 500년의 간극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무의미한 설정이다. <조선왕릉, 잠들지 못하는 역사> 1권과 2권은 잠든 자와 잠들지 못한 자의 차이를 떠나 과거와 현재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두 사람은 '역사'로 전하는 것 이외의 것을 보기위해 더 크게 눈 뜨고 다녔다. 소설가는 과거 왕의 숨결을 들으며 오늘날 백성들의 삶을 읽었고 사진작가는 입을 굳게 다문 석상들로부터 '부귀도 영화도 한 조각 구름'이라는 조탈의 메시지를 들었다.

<조선왕릉, 잠들지 못하는 역사>에는 왕릉의 기본 구조와 각 석물들의 의미, 능 조성을 둘러싼 일화와 능의 주인(왕)이 생시에 남긴 업적과 왕가의 비밀스런 이야기들까지 망라했다. 그래서 이 책은 왕릉 순례에 유용한 교과서로 손색없다. 각 왕들의 가계도와 능의 구조도(능상설도) 조선왕의 역대계보 등 참고자료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 무엇보다 이 두 작가의 왕릉 순례는 '승유억불'



을 주창했던 왕조의 왕들로부터 불교를 읽었다는 '특화된 매력'을 갖는다. 조선의 왕들이 '승유'라는 국시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억불'의 방침에 따라 불교를 철폐하지도 못했다. 불교는 그 자체로 인간의 삶에 녹아 있는 종교이지 시대를 다스리는 이념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종교와 이념의 현실적 차이를 인정했던 왕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조선의 왕릉에서 불교를 읽는 일은 어렵지 않은 것이다.

왕릉순례는 권력과 권위, 부귀영화와 진정한 행복 등을 포함해 삶과 죽음에 대한 비감한 사색과 함께 역사를 느끼게 하는 묘한 매력을 갖는다. 능역이 좁지 않고 숲길에 울창해 건강을 다지는 효과까지 안겨준다. 책의 내용은 <현대불교>에 2007년부터 2년간 연재했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다할미디어 펴냄 | 각권 1만2000원
임연태 기자

“마음 위치 파악하면 주인공”

곽은구씨가 글·그림으로 안내하는 '명상'의 즐거움

수행자에겐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모두 수행이다.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자신이 수행을 한다는 마음으로 사느냐 수행이 된지도 모르고 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매순간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관찰하고 다스리고 다독이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누구나 삶의 주인공이 된다.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깨어 있는 삶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곽은구씨는 '그것(마음)'의 위치 파악을 하는데 명상의 처음과 끝이 있다고 설명한다. 결코 거창하지도 어렵지도 않게 명상을 하고 그로부터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도 하지 마시라고 감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그 정체를 모릅니다. 해부를 한들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는 알고만 들면 알 수 있으며 쓰러지고만 하면 얼마든지 잘 쓸 수 있습니다. 눈을 빛내며 지금 여기 살아 있는 나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곽씨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관찰하는 지혜를 길러주기 위해 거듭 주문한다. “그것의 위치와 방향을 점검하고, “매 순간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쓰도록 하는 안내자 역할을 위해 이 책을 펴냈다”고 말한다.

저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문체가 내용을 쉽게 전달해 주는데, 직접 그린 그림들을 곁들여 이해를 돕고 있다.

불광출판사 펴냄 | 1만1000원
임연태 기자

정자에 오르면 도인이 된다



한국의 누와 정
허균 지음 이갑철 사진
다른세상 펴냄
2만8000원

우리나라 곳곳에는 누각과 정자가 산재해 있다. 선비문화의 한 줄기인 누각과 정자는 단순히 자연을 감상하고 쉬는 공간이 아니다. 흐르는 계곡물 옆에 지어진 누각과 정자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주위를 소란하게 하고 울트리는 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찰의 누각과 정자는 대개 중시 법당으로 오르는 앞마당에 위치하는데 법화나 강설 등의 공간이다.

전국 500여개의 누각과 정자를 답사한 저자는 그 가운데 51곳을 선정해 책으로 묶었다. 저자는 누각과 정자에 깃든 맛과 멋을 통해 마음 다스림의 경지를 표현했고 사진작가 이갑철씨는 누각과 정자의 겉과 안을 포착했다. 계곡과 계류가의 정자, 강호 해안가의 정자, 벌서 정원의 정자, 궁궐의 정자, 사찰 서원의 정자, 향리 관아의 정자 등으로 뜻을 나뉘어 소개하고 있다.



곽은구

다라니 기도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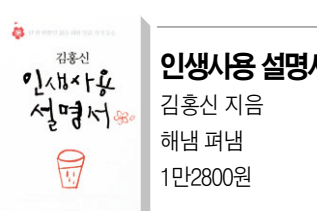


묘장구대다라니 기도의 힘
덕양선원 엮음
우리글 펴냄
9000원

고양시 일산의 덕양선원(선원장 범상)은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도량으로 이름이 높다. 덕양선원 불자들은 100만독 이상의 원력을 세우고 일심으로 기도를 한다. 덕양선원 불자들의 다라니 기도 수행 이야기는 한 편 한 편이 감동 이상의 감동을 준다.

다라니 기도를 하면서 가정의 불화를 극복하고 소원을 이루고 병마를 물리치는 등의 경험담은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다. 신묘장구대다라니 한 자 한 자를 머리글자로 한 '행시(行詩)'도 실렸다.

'삶'을 위한 질문들



인생사용 설명서
김홍신 지음
해냄 펴냄
1만2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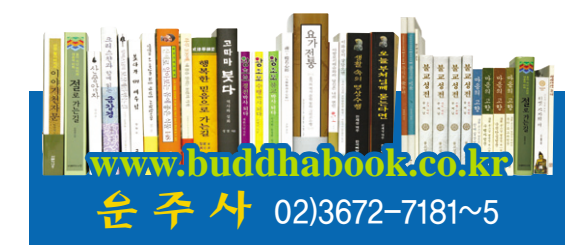
소설가이자 '가장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김홍신씨가 단 한번 뿐인 삶을 위해 일곱 가지의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은 당시는 누구십니까, 왜 사십니까,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괴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겠습니까 등이다. 모두 인생의 근원 묻고 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답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저자가 즉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2	법문 스님의 즉문즉설	법문	정토
3	자리산 스님들의 뜻밖에도 수행 이야기	천천, 현현	달마출판사
4	오늘이 전부다	한진	클리어마인드
5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	해국	시유수
6	세아본 스님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7	인파경	한담	선
8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9	엄마	탁,한	조계종출판사
10	승야변	동주	흥원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새기는 힘인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도 실려 있다.

초발심자경문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거구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신문열송 062-944-4088
매월 셋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현대 강박 전강의식** 031-531-8805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대한불교선밀종에서 **임원, 종도를 모십니다**

대다수의 종단이 선교(敎) 양종이거나 밀(密)종으로 이루어진 한국불교에 해동대선사인 원효성사를 종조로 밀(密)로 점수(漸修)하고 선(禪)으로 돈수(頓修)를 지향하는 선밀종(禪密宗)을 창종하고자 발원하니 사부대중의 동참을 바라며 특히 한국 전통적 불법을 이끌어 나가며 세계에 널리 알릴 임원, 대덕스님, 각 지역을 이끌어 나아갈 종도 분들과 인연 단기를 바랍니다.

입종 구비서류

- 본종 입종(포교소 등록)신청서
- 서약서, 승려증 발급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지사 및 대리점 모집

- 식품사업부 국제/국내 특혜제품(숙취해소제, 마가목차) 보유
- 출판사업부 출판을 원하시는 종도 및 사부대중
- 복지사업부 자비실천모임(복지에 관심을 둔 자원봉사단 모집)

연락처

- 총무원 대구광역시 북구 을내동 495-1(태남빌딩2~3F)
- 전화 053)311-2675~7 / FAX : 053)311-2634
- 사업상담 053)311-2675~6 / 010-3134-8484
- 입종상담 053)311-2677 / 010-3134-8484 (원목)

비영리종교단체 등록번호 (07451-00292) / 비영리종교단체 고유번호 (513-62-65114)

大韓佛敎禪密宗 總務院
http://www.sunmiljong.or.kr

황금액이 나오는 신비의 황칠나무 **“황칠황칠인액”**

이제는 황칠의 시대

특허 10-0457970
제 10-0494482

인삼과 오가피를 뛰어넘는 신비의 황칠 산상의 정령작용보다 뛰어난 신비의 황칠 효소성으로 인해 황칠에서 조차 귀하게 사용되어왔던 황칠이 이제 우리들 곁에 다가왔습니다.

황칠인액 - 40분 1BOX 800ml 40봉 ⇨ 가격 240,000원

황칠나무는

한국고유종으로 수피(樹皮)에서 나오는 황칠(黃漆)은 찬란한 금빛이며 정신을 맑게 하고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식향(安息香)을 함유하여 약리효과가 탁월한 신비의 나무이다. 황칠나무는 전남 기림물 제 15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남 완도·보길도·대흑산도·제주도 등에서만 자생, 그 분포가 제한되어 있다. 200년전 유실된 궁중 도로로 사용되었다.

고문서에 기록된 황칠의 희귀성

- 진시황제가 '불로초'라 믿으며 해동성국에서 가져온 나무가 바로 황칠나무
- 통일신라때 해상왕 장보고 교역상품 중 최상품이 바로 황칠나무

황칠의 효능

당뇨, 비만, 고혈압, 간기능 강화, 성장촉진, 간경화, 위염, 골다공증, 중풍예방

부작용과 명현반응의 다른 점

자사에서 생산되는 건강식품은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을 만드는 아주 좋은 음식이므로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명현반응이 계속되어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으나 그 후 몸이 대단히 쾌적하게 되었다고들 합니다.

- ☞ **당뇨병자** 배출되는 당분의 양이 일시 증가하고 수축에 부정현상이 있다.
- ☞ **고혈압자**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움증 현상이 1주 내지 2주 동안 지속된다.
- ☞ **간경화증 소우자** 대변에 피 또는 핏덩어리가 섞여 나올 수 있다.
- ☞ **위궤양자** 궤양부위가 아프고 답답한 느낌이 든다.
- ☞ **고혈압자** 설사를 하는 현상이 생긴다.

신비한 효력과 효능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고 건강을 되찾으십니다. 직접상담 및 방문으로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으십시오.

상담전화 : 010-5289-2515 / 070-7501-0480